

펠리페 5경기 연속 골…광주 FC 무패행진

‘K리그 2’ 5R…FC 안양과 2-2

펠리페, 집중 경제에도 공격 활발

6경기 연속 무패…리그 1위 수성

승점 11점…2위 아산과 2점차

광주FC가 빗속 혈투 끝에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광주가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19 K리그2 5라운드 FC안양과의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광주는 FA컵 포함 6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선두 자리를 이어갔고, 펠리페는 팀 역사상 첫 5경기 연속골이라는 위업을 이뤘다.

전반 초반은 광방전 양상이었다. 두 팀은 부지런히 상대 진영을 오가며 공세를 벌였다.

안양은 광주의 ‘해결사’ 펠리페를 꽁꽁 묶는 전략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펠리페의 움직임이 막힌 상황에서 광주는 골키퍼 부상과 자책골이라는 악재까지 만났다.

전반 25분 광주 골키퍼 이진형이 상대의 슈팅을 편팅했지만 뛰어 들어오던 수비수 김진환의 몸에 맞은 공이 광주 골대로 향했다.

다행히 공이 골대를 맞으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이 과정에서 이진형과 김진환의 충돌이 일어났다. 그리고 얼굴 부위를 다친 이진형이 윤평국과 교체됐다.

설상가상 32분에는 자책골이 기록됐다.

상대의 슈팅이 김진환의 발에 맞고 광주 골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0-1이 됐다.

분위기가 안양으로 기울면서 어렵게 헤쳐가던 흐름, 전반 43분 상대 수비진에 묶여있던 펠리페가 모처럼 헤더를 시도했지만 비운드된 공은 골대를 비껴갔다.

하지만 전반 종료 직전 박정수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프리킥 상황에서 이으뜸이 띄운 공을 박정수가 머리로 받아 안양의 골망을 훤히 들었다. 펠리페에게 수비가 집중된 사이 박정수가 안양의 ‘세트피스 약점’을 뚫었다.

박정수의 한 방으로 흐름을 되돌린 광주는 전반과 다른 모습으로 후반전을 주도했다.

후반 7분 ‘득점 1위’ 펠리페가 다시 한 번 포효했다.

이시영이 올린 크로스를 펠리페가 뛰어올라 헤더로 연결했다. 이내 안양의 골망이 흔들리면서 펠리페의 5경기 연속 골이자 시즌 8호골이 기록됐다.

이후 광주가 거세게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후반 21분을 시즌 처음 경기에 나선 임민혁이



“너 좀 멋있다~” 광주FC의 펠리페가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안양과의 홈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중앙에서 페널티 지역 오른쪽으로 침투하던 여름에게 칼날 패스를 했다. 이어 문전으로 뛰어든 임민혁이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어렵게 골키퍼 손 끝을 스친 공이 골대를 맞았다.

4분 뒤 펠리페가 다시 한번 헤더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골키퍼 품에 안기고 말았다.

후반 분위기는 광주가 주도했지만 승리에는 한

걸음이 부족했다. 후반 37분 안양 팔라시오스에게 골을 내주면서 2-2 동점이 됐다.

광주가 다시 리드를 잡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다.

후반 추가 시간 이으뜸이 직접 때린 프리킥이 골대를 맞으면서 어렵게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승점 1점을 추가한 광주(3승2무·승점 11)는 안

산 그리너스에 0-1로 진 아산 무궁화(3승 2패·승점 9)와 격차를 벌리며 1위 자리를 수성했다.

앞선 경기들과 다른 로테이션으로 경기를 풀어간 광주 박진섭 감독은 “초반에 날씨 탓인지 집중력이 흐트러진 게 실점으로 이어졌고, 실점 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결과적으로 비긴 것 같다”면서도 “뒤에 있는 선수들도 경

기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것 같다. 전술적인 변화도 (선수들이) 잘 이해해준 것 같다. 전술적인 부분과 선수들의 로테이션 변화에 대한 옵션이 생긴 게 소득이다. 결과는 이기고 있다 비겨서 아쉽지만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 패스 플레이 등에서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봄비에 부진 씻고 다시 심기일전



휴일 키움전 우천 취소… 지난주 2승 3패로 마감
김주찬·김선빈 등 출부상에 5명 이탈 ‘비상체제’
이창진·박찬호·박준태 등 시험대…연승모드 시동

분위기 반전을 위한 ‘단비’가 될까?

7일 광주-기아 험파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시즌 3차전이 우천으로 취소됐다. 이 비와 함께 KIA는 한 주를 2승 3패 ‘저자’로 마감했다.

KIA에는 침체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는 비가 됐다. 주중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시즌 첫 대결을 벌였던 KIA는 1승 2패를 기록했다.

월드컵이 연장을 달리며 한 주의 스트트트를 잘 끊었지만 ‘루키’ 김기훈이 6이닝 4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고, 믿었던 에이스 양현종은 2이닝 7실점으로 무너졌다.

루징 시리즈를 안고 안방으로 돌아온 KIA는 5일 대대적인 엔트리 변동을 단행했다.

극심한 부진에 빠진 해설베이커와 나지완 그리고 황운호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김주찬은 허리, 김선빈은 허벅지가 좋지 않아서 재활군으로 내려가면서 한 번에 5명이 동시에 엔트리에서 빠졌다.

주축 선수들을 대거 엔트리에서 제외한 KIA는

내야수 박찬호와 홍재호, 외야수 유재신, 포수 신범수, 투수 임기준으로 민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이날 KIA는 최원준(3루수)-류승현(2루수)-안치홍(1루수)-최형우(지명타자)-이명기(우익수)-이창진(중견수)-박준태(좌익수)-한승택(포수)-박찬호(유격수)로 구성된 ‘잇몸 라인업’으로 경기를 펼쳤다.

경기는 예상과 다른 흐름으로 전개됐다. 주축 타자들이 대거 빠졌지만 KIA는 키움의 새 외국인 선수 유키시를 상대로 2회 2사에서 선취점을 만들어 냈다.

이창진이 볼넷을 골라낸 뒤 박준태와 한승택이 연달아 2루타를 터트렸다. 박찬호의 내야안타에 이어 상대 유격수의 실책까지 더해지면서 한 번에 3점이 만들어졌다.

마운드에서는 세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선 터너가 6이닝 5피안타 3볼넷 9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리드를 지켜줬다.

8회 믿었던 하준영이 KIA의 시즌 첫 블론세이브를 기록했지만 이명기의 결승홈런을 앞세운 KIA는

6-4 승리를 거두면서 귀한 1승을 만들었다.

이날 중견수로 선발 출장해 안정된 수비와 함께 멀티 히트를 기록한 이창진은 “(승리를 확정하는) 마지막 공이 내 앞으로 왔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다. 어려운 경기였는데 승리를 확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떨렸다”면서 “주축 선수들이 빠졌던 만큼 경기에서 나서는 선수들의 각오가 남달랐다. 이런 경기에서 우리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승리를 하고 싶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뻤다”고 밝혔다.

‘잇몸 야구’로 상대에 일격을 가한 KIA는 6일에도 그 기세를 잊는 것 같았다.

선발 황인준이 1회 난조를 보이며 3실점은 했지만 최원준의 볼넷으로 시작된 3회 류승현, 최형우, 이명기, 이창진의 안타 등으로 승부를 3-3 원점으로 끝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좋지 못했다. 5회초 이민우와 이준영의 제구 난조와 수비 실수가 겹치면서 대거 9실점을 했다. 전날 깜짝 승리로 끌어 올렸던 분위기는 4-14 대패로 하루 만에 차갑게 식었다.

주전 타자들의 떨어진 페이스 속 투수들의 부상 그리고 양현종의 부진이 겹치면서 불펜진의 어깨까지 무거워졌다.

2019 시즌 첫 우천 취소로 KIA는 8일 휴식날까지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발걸음이 무거운 KIA가 비로 분위기를 바꾸고 뒤늦게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윤동 “마무리 역할에 자부심”

박찬호 “데뷔보다 복귀 더 떨려”

덕아웃 T 톡톡

▲자부심이 들어요 = 아직은 ‘마무리’ 자리가 어색하면서도 좋은 김윤동이다. KIA는 김윤동을 마지막으로 해 2019 시즌을 풀어가고 있다.

처음 마무리라는 고정된 역할을 맡은 김윤동은 6경기애나와 1.35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3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승리가 기록된 지난 5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2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는 등 확실하게 뒷문을 단속하고 있다.

김윤동은 “그동안은 확실한 내 자리가 없었는데 해보고 싶던 자리였다. 자부심이 든다.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 내 자리가 어색하기는 하다. 스피드가 만족스럽지 않다. 직구 움직임도 마지막에 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적이 있는데 = 데뷔전보다 더 떨린 복귀 전이었다. 지난가을 혼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예비역’ 박찬호는 지난 5일 키움과의 홈경기를 통해서 복귀전을 치렀다.

지난 2016년 9월 26일 수원 KT전 이후 첫 경기에 나선 박찬호는 “첫 공이 오기까지 너무 떨렸다.

데뷔전에서도 안 떨었는데 너무 긴장했다. 이런 적이 없었다”며 복귀전 소감을 밝혔다. 가슴 떨린 복귀전을 치렀지만 박찬호는 5일과 6일 깔끔한 수비로 확실하게 어필했다.

박찬호는 “사실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와서 수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밸 스텝 등 많은 게 어색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았다. 내가 처리하기 쉬운 바운드로 공이 왔다”고 언급했다.

김기태 감독도 “수비로는 타율 0.350이다(웃음). 타격에서도 힘이 많이 불었다”며 박찬호에게 좋은 점수를 줬다.

▲10일 있다가 다시 = 7일 경기를 앞두고 KIA의 엔트리 변동이 있었다. 6일 선발로 나섰던 황인준이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임기영의 부상으로 지난달 31일 KT전에 이어 키움을 상대로 선발로 역할을 했던 황인준은 두 번째 등판에서는 3.2이닝 5피안타 5볼넷 3탈삼진 3실점으로 아쉬운 성적을 냈다.

하지만 이번 믿소는 다음 등판을 위한 준비라는 게 김기태 감독의 설명이다.

김 감독은 “질책은 아니고 다음 대체 선발 자리에는 다른 선수를 기용할 생각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선발턴에 다시 황인준을 부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